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민주공화국인 남쪽에서나 인민공화국인 북쪽에서나 다투어 공화국임을 내세우는 걸 보면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가본데 언제부터가 우리 주변에서는 그 말이 비아냥처럼 쓰이고 있다.

겨울공화국을 비롯해서 부패공화국, 비리공화국, 막장공화국, 사고공화국, 불륜공화국, 자살공화국, 투기공화국, 찌라시공화국 같은 말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쓰이고 요즘에는 또 거짓말공화국까지 거기 보태어져 그야말로 공화국이라는 말의 체면이 말도 아닌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뭐가 찜찜하

고, 불쾌하고 심란한 뒷맛을 남기는 말들이지만 그 중 우리를 가장 심란하게 하는 건 아마도 거짓말공화국이지 싶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들이 하도 많아서 다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감히 감당 못할 당치 큰 거짓말들은 그만두고 이 글은 우선 가벼운(?) 거짓말 하나만 화제로 삼겠다.

길가에 줄 하나가 떨어져 있기에 주위 들고 집에 갔더니 줄 끝에 웬 소 한 마리가 달려 있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뒀다는 민담 속의 억울하다는 소도독은 누가 들어도 속이 환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듣는 이들은 입술에 침이나 바르라고 비아냥거리곤 하는데, 그때 입술에 바르라는 침은 최소한 양심 표현의 또 다른 말일 것이다. 왕실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 보통사람 같으면 입술이 바짝 마를 테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입술에 침을 바르게 되는 상식을 바탕삼아 그런 비아냥이 생겼을 것이다.

‘정직’을 가훈으로 삼고 살았다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말을 들으며 오죽했으면

그런 걸 가훈으로까지 삼았겠는가 싶어 나랏일들이 아슬아슬하게 여겨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사대강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 대통령은 TV를 통한 대국민 담화에서 느닷없는 로보콜고기 얘기를 꺼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으스스막장 답답을 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목은 버릇인지 말끝마다 그는 입술에 재빠르게 침을 바르곤 했다.

지난 연말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길가에 늘어진 줄 끝에 소가 매달려 있을 줄은 몰랐다는 민담 속의 소도독이 문득 떠올랐다. 국민 건강증진은 길가에 늘어진 줄이고 줄 끝에 매달린 소는 막대한 세수 증진이라는 걸 모를 이는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흡연자들은 건강이나 돈보다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꼴이 과해서서 이참에 아예 담배를 끊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통계를 통

해서 이미 환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담뱃값이 비싸다는 나라들의 국민소득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담뱃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사실을 흡연자들은 잘 안다. 그리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도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금연을 하겠다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얼마 안 되어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될 것이다. 담배보다도 그 부글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국민의 암 발병 확률은 아마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곧 바로잡을 때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나라 재정이 어렵지만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그들이 무슨 오기를 부릴지 겁나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생각 끝에 만만한 담뱃값을 올렸노라고. 머지않아 물값도 술값도 교통비도 전기세도 그렇게 올리게 될 거라고.

화가 나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구차하게나마 그렇게 좀 정적해진다며 그나마 국민건강에 다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의료칼럼



이 승 철
전남대병원 피부과 교수

지금과 같이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더욱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건선 환자들이다.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 피부속 수분이 줄어들어 질환이 쉽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선은 우리 몸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면역 세포가 피부를 공격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상처가 없는 피부에 염증과 딱지가 생기고, 은백색의 각질로 덮여 있는 붉은색 발진이 전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는 완치가 어려워 평생 증상을 관리하며 치료해야 하는데, 병변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피부에 나타나는

건선 환자가 관절도 신경써야 하는 까닭

특성 때문에 많은 건선 환자들이 전염성 피부병 환자로 오해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빈번하다.

건선 환자들은 잦은 재발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낮은 질환 인지도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심하다. 이처럼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많은 건선 환자들이 도중에 지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건선을 방지하게 되면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며, 동반 질환으로 건선성 관절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건선성 관절염은 건선 환자에게 발생하는 염증성 관절염으로 특히 건선을 오래 앓은 환자에서서 발병 위험이 높다.

하지만 건선 환자들의 상당수가 건선성 관절염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병을 진단받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관절은 한 번 손상되면 원상복구가 힘이기 때문에 병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건선 환자들은 평소 건선성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잘 알아두고

본인의 관절 건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선과 마찬가지로 건선성 관절염도 피부과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절 통증과 같은 작은 신호가 나타나면 이를 가벼이 넘기지 말고 전문의에게 본인의 증상을 잘 설명해야 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조조강직 증상이 나타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가락과 발가락의 관절이 통통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류마티스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선성 관절염 환자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과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질환을 관리한다. 약물 치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항류마티스 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증상이 심한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만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관절의 변화를 막기 위해 질환 초기부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은 이미 건선이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최근 환자들의 고통을 반영해 건선성 관절염이 희귀 난치질환 산정특례에 포함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환자의 본인 부담 치료비용이 10%로 감소해 치료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은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질환을 관리한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이다. 과학의 발달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의 완치를 위한 의학계의 연구도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완치가 먼 목표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도 본인의 질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때 치료 효과 역시 극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社 說

혼탁에 불만까지 높아가는 조합장 선거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돈선거’라는 말이 나도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현직에게만 유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광주·전남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198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50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평균 3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미 분위기가 과열돼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등으로 고발과 수사의뢰된 사건만 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조합장 선거를 조합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맡긴 것은 깨끗하게 치러보자는 차원이지만 ‘조합장 선거는 돈선거’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억 원 당선, 2억 원 낙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니 이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 조합마다 부정선거 추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

는 등 공명선거를 다잡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은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다. 금품 제공이 아직 통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돈을 뿌리는 후보는 분명 조합에 그 이상의 해악을 끼친다. 정부의 감시까지 받아가며 선거를 치르는 이유도 되새겨봐야 한다.

선관위와 조합 중앙회 등도 부정선거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공명성 확보와 더불어 조합장 선거법에 대한 불만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선거법에서는 선거 13일 전까지 후보자가 공개 안 돼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있고, 후보자 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절대 유리하다며 반발이 거세다. 이번에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 지역에 통 큰 투자 바람직하다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지역 진흥사업과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수도(電力首都)’ 건설에 나섰다. 올 한해 지역 진흥사업에 1274억 원, 전력공급 안정화사업에 1348억 원 등 2622억 원에 달하는 통 큰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20일 지역과 동반 성장 차원에서 강소기업 유치·육성에 66억 원, 지역대학과 한전 해외사업에 필요한 에너지 특화 전문 인재 육성에 619억 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경제·문화·환경분야에 58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기업 유치, 지역 대학 및 인재 육성, 지역 상생협력 등 3대 분야 38개 세부사업에 이른다.

특히 한전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기 구현을 위해 국내 부사장 주도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 TF’를 구성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를 이미 갖춘 바 있다. 에너지밸리는 빛가람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

심으로 광주·전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에너지 허브 구축 사업이라고 한다.

한전의 유례 없는 지역 투자는 오랜 낙후와 가뭄이나 열악한 광주·전남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정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경기가 바닥이고 국내외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올 한해 262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의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한전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제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주거환경과 교육·문화시설 조성은 물론 자녀 장학 등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혁신도시는 지역민과 지자체가 함께 가꾸고 발전시켜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無 等 鼓

10여 년 전, 누리꾼들이 역사 속의 인물로 ‘드림 팀 내각’을 구성한 적이 있다. 국무총리는 물어 볼 것도 없이 황희 정승이었다. 국방부 장관엔 이순신, 통일부 장관엔 김 구, 해양수산부 장관엔 장보고 등이 발탁됐다.

드라마 작가 신봉승 씨도 몇 년 전 펴낸 그의 책을 통해, 조선의 역대 임금과 신하들을 현실로 불러냈다. 세종에게 대통령직을 준 것은 당연했다. 한때 특이한 점은 황희가 아닌 오리 이원익이 국무총리에 임명됐다는 거다.

그렇다면 두 여종에게 ‘너도 옳고 너 또한 옳다’고 했다는 일화

등으로 유명한 황희는 왜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까. 아마도 실록에 나타난 사관의 평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뇌물을 수차례 받고 간통까지 했다는 그 기록이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그거야 50여 년의 긴 관직 생활을 고려하면 한때의 작은 오점에 불과하겠지만, 그래서 세종도 관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중용했을 터이지만,

최근 박기현이 쓴 ‘류성룡의 징비’라는 책을 읽고 탁, 무릎을 쳤다. 드림팀 내각의 국무총리로 다른 사람이 아닌 서에 류성룡이 딱, 맞췄다는 생각이 들

어서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그가 오늘날 새삼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임진왜란의 원인과 경과·결과를 솔직하게 남겼다는 점이다. 더구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보다 백성과 사직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 한 위정자였다. 우리 역사에서 그처럼 자신을 반성한 직업 관료를 만난 적이 있던가?”

서에 선생은 재물과 여색이나 직위를 탐하지 않았고 감직하며 거울처럼 맑았

다고 한다. 그는 권율과 이순신을 조정에 천거함으로써 누란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해 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틀을 다시 짠 개혁자이자,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먹여 살려 낸 아버지과 같은 존재였다. 그가 쓴 ‘징비록’(懲毖錄)은 후손들이 다시는 그 같은 참화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남긴 시대의 걸작이다.

아, 그림다. 그 같은 인물이 왜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가. ‘심상시’ 논란에 ‘기춘 대원균’까지, 비서나 각료나 모두들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신하는 약에 쓰러해도 찾아볼 수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 하릴없이 탄식할 수밖에. /이흥재 논설교

기 고



하 영 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

12월이 가고 새해가 온다며 가슴 설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이 해와 다음 해는 인간이 구분한 것이지 세월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는 밤에 잠들면 죽고 아침에 눈뜨면 다시 살아가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다.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어제는 사라지고 오늘이 밝아오나 하늘에 해는 뜨고 구름이 흐르고, 내 주위의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한 것은 나의 생각뿐이다. 지난 연말 어느 모임에서 새해맞이 일출을 어디로 보러 갈 계획이나는 질문을 받았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일출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줄 수도 있으나, 해는 변함없이 매일 떠오르고 1월 1일의 해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일출을 촬영하기 위해

매년 동해안을 찾아갔고, 가능하면 1월 1일을 택한 경험이 있다. 요즈음의 나의 1월 1일 해맞이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과거 촬영한 일출 사진을 꺼내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내일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면서 지난 해를 반성하고 새해의 희망을 빌어보며 다짐한다. 어제는 부도수표요 내일은 약속어음이고 현재는 현찰이라는 말이 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내일을 선물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가장 큰 어려서움 중의 하나는 ‘나는 기대수명 이상까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기대수명까지는 살 수 있다는, 그 이상 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산다. 그러나 기대수명은 믿을 수 없고, 기대수명까지 아니 운명수명까지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생체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생체수명이란 남·여로서의 역할을 하고 항상 활기차고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으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나이를 이야기한다.

좋은 옷을 입어도 봐주는 사람 없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하고 싶은 일도 할 수도 없

는, 남의 도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은 기대수명이 연장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인생은 생체수명 기간인 제1막과 생체수명이 다하고 운명수명까지의 제2막, 그리고 운명수명이 다한 제3막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인생의 제1막인 생체수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고, 인생의 제2막인 운명수명까지 살아가기 위해 건강관리와 재산관리, 친구관리를 잘해야 한다. 인생의 제3막인 운명수명 이후는 다녔은 사람이 없어 알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사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다. 남·여의 평균 생체수명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여성은 갱년기를 지난 55~60세까지이고, 남성은 60~65세까지라 생각한다.

우리는 생체수명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보람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젊어서부터 해야 한다. 생체수명까지, 아니 생체수명 기간을 연장하며 인생을 생동감 있게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남의 눈치만 보며 살지 말고, 내 생각을 참고만 살지 말고, 너무 열심히 일만 하지도 말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휴식과 취미생활도 하고, 남에게 도움도 주며, ‘행복은 나의 선택이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제2막의 삶을 위해서는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월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경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조 사 부 2200-57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